

# 교성곡으로 만나는 '십우도'

## 서울프로아트오케스트라 '수행의 여정' 연주



참나의 본성을 찾아가는 십우도를 교성곡으로 표현한 '수행의 여정'이 관객들을 찾는다. 서울프로아트오케스트라가 주최하고 천태종 관문사가 주관하는 십우도를 주제로 참 나를 찾아가는 교성곡 '수행의 여정'이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린다.



지휘자 한정일 씨는 참나의 본성을 찾아가는 십우도를 교성곡으로 작곡한 '수행의 여정'을 7월 25일 세종대 대양홀에서 공연한다. 사진은 연습 장면.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음악회라는 부제가 붙은 이 공연은 지휘자 한정일 씨(사진 위)가 1년여 끝에 완성한 곡으로 다문화 가족과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다.

한 씨는 "십우도는 참된 나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그림이다. 어렸을 때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어른이 되어 그 뜻을 알고 나서는 십우도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다. 그래서 삶이 막막하고 힘들 때 십우도가 많은 위로가 되었고 이를 음악으로 표현해보고 싶었다. 이 공연을 통해 한국에서 어렵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자신의 아픔을 잘 견디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지휘자 한정일 씨는 불자음악인으로 불교음악의 새로운 해석과 다양한 방법으로 찬불가의 대중화를 이끌어 왔다. 그동안 염원이라는 제목으로 2장의 찬불음반을 낸 바 있으며 최근 '연연의 끈'이라는 싱글 음반도 내놓았다.

천태종 합창단을 15년 동안 이끌어온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전법과 포교의 의미를 공연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합창, 독주곡 등 총 13곡 담아**  
**한정일 지휘자가 1년에 걸쳐 작곡**  
**7월 25일 세종대 대양홀서 발표**  
**솔리스트와 합창단 등 2백여명 참여**

천태종 관문사의 후원과 자비를 들어 기획한 이 공연에는 다문화 가족 3~4백명을 초청해 놓은 상태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 회향한다는 의미에서 불자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공연이다. 이런 좋은 의미의 공연에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성곡 '수행의 여정'은 참된 자기를 추구하는 선의 실천을 통해 단계적으로 깊어가는 수행자의 심경을 열 개의 상징적 그림에 맞추어 구성, 목동과 소를 통해 잃어버린 참된 자신을 찾는 구도의 과정을 담았다. 음악은 혼성 합창과 솔리스트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통해 총 13곡으로 표현된다.

한 씨는 "십우도에 대한 내용을 연구해 핵심 내용을 철폭마다 정리했다. 노래 가사에 맞게끔 단어를 선정하고 운을 맞추면서 작곡 기간이 1년 정도 걸렸다. 이번 공연을 마치고 3년 후쯤에는 이 곡을 오케스트라로 장엄하게 만들어 다시 무대에 올리고 싶다"며 의지를 다졌다.

출연진으로는 소프라노 박소림, 바리톤 고일연·김재일·박경태와 서울프로아트오케스트라, 관문사·대광사·성통사·천화사·황룡사 합창단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02)3460-53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쑤사상' 만다라 몸짓 언어로 풀어내

## 티베트 무용단 완마덴스컨퍼니 '삼발라' 공연



삼발라는 티베트의 민속춤 토포무와 티베트 불교의 금강무를 현대무용과의 조화로 이뤄낸 공연으로 공사상을 보여준다.

티베트의 만다라가 무대 위 춤사위로 그려지면 삶과 죽음을 넘어선 영혼의 여정이 펼쳐진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 안무가이자 연출가인 완마 지안추오(Wanma Jiancuo)는 '삼발라(Shambhala)'로 티베트 불교의 핵심과 티베트 문화의 정수를 무대 위에서 펼친다.

댄서들은 순결한 하얀색 소라, 날리는 연, 무게 없는 물고기, 무대에 수놓아지는 일곱가지 색의 모래 만다라 등의 상징적 도구로 티베트 불교의 아름다움과 승교함을 보여준다. 무용수들의 복장은 절제되어 신체의 선과 감정만으로 음악에 맞추어 움직인다. 또한 안무는 티베트의 민속춤인 토풍무(土風舞)와 티베트 불교의 금강무(金剛舞)를 현대무용과의 조화로 이뤄낸다.

공연을 연출한 완마 지안추오는 티베트 출신으로 중국 방송국 공연 연출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2012년 완마덴스컨퍼니를 창단해 뉴욕 시카고 홍콩 상하이 북경 등에서 공연을 가지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삼발라'란 정신의 낙도(樂土)와 쾌락(快樂)의 원천을 말하며, 전통 문화적 요소를 현대무용으로 풀어내며 관객과 함께 마음속 이상세계를 찾아나간다. 특히 무대에서 모래 만다라(sand mandala)를 그리는

**티베트의 토포무·금강무**  
**지안추오가 현대무용으로 '승화'**  
**8월 2일~3일 국립극장서 공연**

행위는 다채로운 시각적 충격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댄서들이 즉흥적으로 그리는 모래 만다라는 상반부의 차가운 색조와 하반부의 따뜻한 색조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만다라는 티베트인이 생각하는 우주관의 집중된 표현이자 진리이다. 무용수들은 무대에서 다색의 만다라를 조성하고 뒤이어 모든 색을 파괴한다. 이러한 파괴의 행

위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완마덴스컨퍼니 홍보 담당 구희 씨는 "감독이 티베트 출신이지만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떠나 티베트의 예술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한 공연이다. 불교 공사상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모래로 만다라를 그리며 금강무를 추는 댄서들은 회색조의 단출한 옷만을 입고 등장해 불교 사상을 춤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8월 2일~3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KB홀극장에서 펼쳐지며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이다. 1544-1555 정혜숙 기자

## 고흥의 중세 불교문화 한자리에

### 광주박물관 9월 28일까지 '남도문화전V-고흥' 특별전

봉래사 관음보살상과 복장유물, 봉래사 신중탱화, 무술명 동종 등 남도의 불교 유물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남도문화전V-고흥' 특별전을 9월 28일까지 개최한다.

고흥은 우리나라 고인돌 최대 밀집 지역의 하나로 청동기문화를 꽃피웠으며, 삼국시대의 고분문화는 고대 해상세력의 실체를 보여준다. 또한 분청사기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도자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전라좌수군의 중추로 임진왜란을 막아낸 충절의 고장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유구한 역사 속의 고흥을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고흥의 중세와 근세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광주박물관은 "고흥의 불교문화는 고려 초기에 형성되어 17~19세기에 가장 성행했다. 고흥의 주요 사찰 소장 문화재 가운데 봉래사 관음보살상에서 나온 복장유물 등 그동안



봉래사 관음보살상

잘 공개되지 않았던 불교문화재가 대거 소개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고흥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고흥의 도자문화도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운대리 분청사기가 마티 출토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려시대 청자부터 조선시대 백자에 이르는 고흥 지역 도자문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강진과 함께 고흥이 도자 제작의 중심이었음을 알릴 수 있다. (062)570-7000 정혜숙 기자

## '만만브라더스와 함께하는 카툰 템플스테이'

불교카툰 사이트 만만한 뉴스(발행인 지찬) 작가들이 7월 12일~13일 서산 부석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만만브라더스와 함께하는 카툰 템플스테이'로 열린 이 행사는 카툰 그리기, 카툰 강의는 물론 염주찌기, 명상, 운력 등 불교 문화와 카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학부모, 학생, 만화가 등으로 구성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총 19명이 참가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사찰을 관람하고 자신이 느끼는 불교 상징물을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불교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만한뉴스 발행인 지찬 씨는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참여해 사찰을 관람하고 이를 그림으로 옮긴 후 자신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불교문화와 카툰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행사가 끝나고 작가들이 직접 그린 액자들을 참가자들에게 선물해 참가자 모두 감격스러워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 법관 스님 초대전 '禪-2014'

### 7월 29일까지 에이블파인아트NY갤러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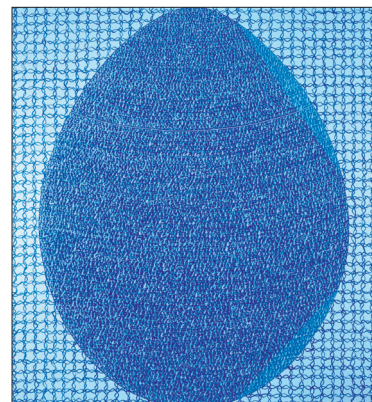
법관 스님 초대전 '禪-2014'가 7월 29일까지 에이블파인아트NY갤러리에서 열린다. 주로 석재가구를 이용해 색과 선, 면 등 조형적 요소로 작품을 완성하는 스님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을 작화에 적용시키며 구도의 과정을 작품으로 담아낸다.

법관 스님은 "마치 삼천 배를 하듯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해 왔다. 정신을 놓지 않고 캔버스에 무수한 점을 찍는 과정은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나 수행과 닮았다. 이렇게 완성된 점과 선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제 각각 모두 다른 모습이다. 이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새로운

경지를 이루어가는 구도의 과정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독창적 미술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관 스님은 그림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표현이라고 강조한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가 작업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의 작품은 선(禪) 그 자체이기도 하다.

법관 스님은 "그림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작품을 봤다. 이 과정 동안 미(美)에 대한 개인(開眼)이 먼저 이루어진 것 같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깨



색과 선, 면 등 조형적 요소로 표현한 법관 스님의 '禪'

달음의 경지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한다. 법관 스님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개인전, 경인미술관 개인전, 인사아트센터 개인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한·중 문화교류전 등을 열었다. (02)546-3057 정혜숙 기자

# 지장보살님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 현신하신다!!

## '영산불교 현지사 대구분원'은 지장보살님의 주처(住處)로서 영험한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 지장보살님 가피로 학업을 성취하다

...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대구분원에 지장보살님 백일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직 사춘기의 방황이 남아있고, 체력이 약하여 공부에 잘 집중하지 못해서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어찌 견뎌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화반이라는 성적 우수 학생들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저의 우려와는 반대로 아들은 지장보살님의 크신 가피로 반에서 1등을 해서 심화반 중에도 최상급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기 싫다고 하던 둘째아들이 요즘은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 큰 아들은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분원에서 또 지장보살님께 대학 합격을 발원하면서 백일기도를 올렸습니다. 입학시험에서 아들은 심기 안정되어 실수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치과대학에 가고 싶어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아니었다면 아들들 학업 문제로 얼마나 근심 걱정을 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대자대비하신 지장보살님, 세계 생생 착한 불자 되어 오직 부처님을 찬탄 공경 칭명염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권은경

### 지장보살님 기도 및 공부하는 방법

매일(지장보살님절)을 1독 하고(보량이 많으면 몇페이지 나누어 읽는다)  
참부다라니를 7회 정도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지장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대구분원 지장재일 안내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대구분원 재일행사 안내 : 음력 1일, 15일, 23(마루재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영남대학병원정문앞) 053) 654-5557

### 지장보살님에 대해 처음으로 밝힙니다

지장보살님은 불명(佛名)이 시방여래불인 부처님으로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좌우보처는 선행장보살님 자원행보살님입니다. 명부(冥府)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명부는 살아생전 지은 선악업에 따라 죽음 이후 영혼체들의 갈 길을 결정하는 곳으로서 이 명부의 일을 도와서 좌우보처 역할을 대행하는 분이 도명존자·무두귀왕(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님)입니다. 그 아래에 열시왕(열본의 왕)이 계십니다.

- 자재만현 큰스님 범문 중에서 -